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46장 사랑의 송가)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4,1-11)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4,1-11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3/9 사순 제1주일)

어느 날, 악마가 한 젊은이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나와 내기를 하자. 여기 열 개의 병이 있는데 아홉 개에는 꿀이, 나머지 한 개에는 독이 담겨 있다. 하나를 골라 독이 나오면 내가 네 목숨을 갖고, 꿀이 나오면 많은 돈을 주지."

젊은이는 악마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돈이 필요하게 되자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90%의 확률이니 실패할 리는 없겠지.'

긴장으로 땀이 범벅이 되어 병 속의 내용물을 들이켰던 젊은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병을 내려놓았고 악마는 많은 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그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고 돈이 떨어질 무렵 악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기 아홉 개의 병이 남아 있다. 다시 한 병을 골라 마셔라. 이번에는 지난 번 돈의 두 배를 주지."

좀 더 고민하던 젊은이는 아직 꿀이 든 병이 많다고 속으로 되 뇌이며 악마의 제안을 받아 들였고 이번에도 꿀이 든 병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악마는 젊은이의 삶의 고비마다 다가왔고 꿀이 든 병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확률은 줄었지만 악마가 제안하는 액수는 커졌습니다. 방만한 생활에 젖어버린 젊은이는 그때마다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된 젊은이에게 악마는 남은 두 개의 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선택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삶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길들여졌기에 눈을 딱 감고 병 하나를 골라 내용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성공했다! 나는 악마의 도전을 이겼다!"

입 안에 꿀맛이 퍼지는 것을 느끼며 노인은 외쳤습니다. 동시에 악마도 노인을 바라보며 남은 한 병을 마셔 버린 후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은 없었어! 너는 돈을 갖고 살아남았지만 네 인생을 돌아봐라! 내가 주는 돈에 의지하며 허비한 네 인생이 바로 내 것이다."

유혹을 잘 다루어서 이익을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끈질기고 지성보다 교묘한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서 몸을 돌려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유혹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교만은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원죄의 순간을 반복하게 합니다. '조금만 더'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단호히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수원교구 3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3월5일 '재의 수요일'로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 시기에 우리가 실천하는 단식과 자선의 참뜻이 무엇인지 깊이 새기며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여 은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 이번 사순시기에는 구역별로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잘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상반기 새 반장님들이 임명되셨습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새롭게 출발합시다.

※ 반명부 정리를 부활 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읽고 푸는 성경 퀴즈’

◈ **이 달에 읽을 말씀: 사무엘기 상권 26-31장**

◈ **성서문제**

1.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갈 때 함께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26,6-7)
   1) 아비사이　　2) 츠루야　　3) 요압　　4) 아히멜렉

2.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방에서 거주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27,7)
   1) 2년
   2) 3년 6개월
   3) 1년 4개월
   4) 5년

3.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시오. (30,6.22-24)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모든 군사가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쓰라려,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자고 수군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　　) 자기의 (　　) 덕분에 힘을 얻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이들 가운데 악하고 고약한 자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　　)은 하나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마다 제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그러나 다윗이 말렸다. “형제들, (　　)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러 온(　　)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일을 두고 누가 그대들이 말을 들을 것 같소?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몫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다 (　　). (　　) 나눠 가져야 하오.”

4. 사울이 변장을 하고 찾아간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28,7-8)
   1) 혼백을 불러올리는 여인
   2) 예언자
   3) 요리사
   4) 양을 치는 여인
   5) 율법학자
   6) 창녀

◈ 전례이야기 ; 재의 수요일

부활대축일 전 40일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첫날로서, 이날 미사 때 참회의 상징으로 사제가 재를 축복하고 신자들의 머리 위에 얹는 ‘재의 예식’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장례미사의 감사송에서 우리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사순시기의 재는 회개이며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 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하는 사순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드러나신 부활의 영광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전례주년의 가장 핵심인 성주간 기간만이라도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례하여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자신의 부활로 느껴지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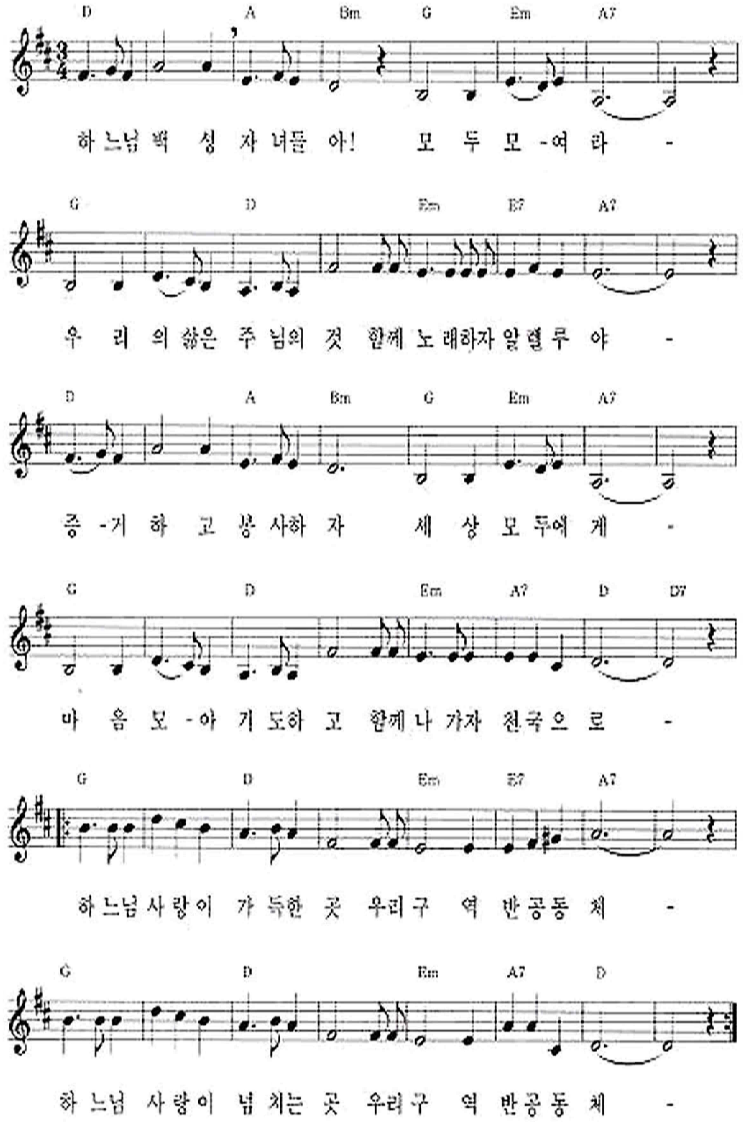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